

블랑팡,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월드 오션 서밋(World Ocean Summit)을 후원하다

블랑팡은 2012년 이코노미스트의 월드 오션 서밋(*The Economist's World Ocean Summit*)이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블랑팡과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2월 말 발리에서 4번째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기간 이코노미스트와 블랑팡은 제 2회 오션 이노베이션 챌린지(*Ocean Innovation Challenge*)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세이셸(Seychelles)의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수상을 거두었다.

제 4회 월드 오션 서밋(*World Ocean Summit*)이 2017년 2월 22~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서밋은 정부, 기업, 학계, NGO에서의 세계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바다 경제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주요 포럼으로서 설립되었다. 400명 이상의 연설자와 참석자 등 숫자와 규모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 파트너십의 본래 목표는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다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결과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블랑팡은 월드 오션 서밋이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왔다. 실제로 이틀간의 행사 기간 동안 이뤄진 정부, 조직, 기업의 많은 야심 찬 발표를 살펴보면 바다와 관련해 민간 부문을 비롯한 여러 다른 부문들이 이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약속은 개발 도상국이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일깨워준다.

이와 함께 이코노미스트와 블랑팡은 제 2 회 오션 이노베이션 챌린지(*Ocean Innovation Challenge, OIC*)도 진행했다. 일종의 바다와 관련한 가장 혁신적인 것을 선정하는 대회로 올해는 금융 관련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총 40 여 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 인 마크 A. 하이예크(Marc A. Hayek)를 포함한 전문가 심사위원이 선정한 세 명의 결승 진출자들이 발리에 초청되어 자신의 프로젝트를 서밋에 참석한 이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투표를 거쳐 우승자가 가려졌다.

세이셸 정부의 카운슬러 도미니크 벤자켄(Dominique Benzaken)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는 부채가 있는 섬나라가 지역 사회가 제안한 작은 규모의 지속 가능 관련 프로젝트에 매우 낮은 이율의 "블루 본드(blue bonds)" 발행할 경우 그것을 그들의 부채 일부와 교환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세이셸 블루 본드(*Seychelles Blue Bonds*) 프로젝트는 OIC 의 기준을 충족시켰고, 곧 다른 섬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테스트해볼 예정이다.

올해 블랑팡과 이코노미스트는 바다와 관련된 이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자 오션 필름 시리즈(*Ocean Film Series*)도 소개했다. 서밋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발리에서 처음 상영된 첫 에피소드는 웹사이트(<http://films.economist.com/blancpain-ocean>)를 통해 런칭했고 런칭한지 2 시간 만에 400,000 뷰를 기록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몇 주 후 소개될 예정이다.

블랑팡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낙관주의(optimism), 장기적 비전(long-term vision), 혁신(innovation)이라는 공통 가치 아래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힘을 모아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고 바다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전하며 계속해서 바다를 보호할 것이다.

다음 월드 오션 서밋은 2018 년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벤트 혹은 블랑팡과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필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oceansummit.economist.com/>